

# 출장보고서

## I. 출장개요

1. 출장자: 이장규
2. 출장기간: 2012. 1. 13~14
3. 출장지: 중국 상해 (교통대학 고급금융학원)
4. 출장목적: 한양대 상해센터 특강

## II. 출장일정

일자	행선지	활동사항	비고
2012. 1. 13	김포→홍차오(상해)	출국 및 특강	-
2012. 1. 14	홍차오(상해)→김포	귀국	-

## III. 활동내용

특강 발표내용: 첨부자료 참고

질의 및 답변:

[질문] 한중FTA의 협상개시가 합의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한중FTA 전망 및 영향은 무엇인가?

[답변] 한·중FTA는 중국측의 고위급으로 부터도 과거 수차례 요구한 것이고, 협상 이전 단계는 종료한 상황이었다. 한중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자유무

역협상임에 분명하다. 다만 모든 FTA와 마찬가지로, 협상이 어떤 모습으로 결정되는가에 따라서 영향은 달라질 것인데, 중국은 비교적 낮은 수준의 FTA를 추구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럴 경우 한중FTA의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질문] 중국은 선진국시장의 침체로 대외수출이 타격을 받게 되어, 신흥국으로 시장을 다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세계 경제 침체에서 비교적 선전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답변] 타당한 측면이 있다.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 중국의 수출산업은 큰 타격을 받았고, 중국은 신흥시장 개척으로 위기를 타개하는 방침을 들고 나왔다. 특징적인 것은 중국의 선진국 수출은 주로 최종소비재 위주인데 비해서, 중국의 신흥시장 수출은 설비 등 자본재 수출 비중이 높다. 전망을 한다면 신흥시장이 세계경제를 견인할 만큼의 수준이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선진국경제가 침체를 지속한다면 궁극적으로 신흥경제도 타격을 받고, 신흥시장을 향한 중국의 수출도 영향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질문] 한국경제는 어떤가?

[답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2012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하기 어렵다. 다만 한국경제의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개인적인 견해를 말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한국은 G20 등 세계의 주요협의기구에서 세계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도 중국시장에서 우리의 수출비중이 2009년에는 상승하는 등

의 성과에 힘입어,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비교적 빨리 회복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주요 수출기업은 세계시장에서 선진국, 신흥국 등의 기업과 경쟁하여 일정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고 있는 것은 맞다. 다만 내수기업 혹은 非수출기업과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고, 점점 더 양극화가 심화되는 측면이 우려가 된다. 정치권 등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알고는 있지만, 해결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많다. 2012년은 정치의 한 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해결책이 찾아지기 보다는 선전적이고, 비효과적인 정책들이 난무할 것으로 생각한다. (끝)

# 2012년 세계경제 전망

이장규(李章揆)

cklee57@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1

# 2012년 세계경제

- 높은 불확실성으로 성장세가 2011년보다 둔화될 것이며, 2011년에 발생한 리스크 요인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경기둔화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음.
- 2012년 주요이슈: 유럽재정위기, 선진국 저성장, 신흥경제국 고물가 여부
- 각국의 정책수단이 제한되어 있고, 각국이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어 리더십 발휘가 어려움.

## 2012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2011년	2012년
세계	3.8	3.5
미국	1.7	1.9
중국	9.2	8.5
일본	-0.5	2.1
유로	1.6	0.2
영국	0.9	0.6
브라질	3.1	3.5
인도	7.3	7.6
러시아	4.0	4.4
아세안4	4.5	5.3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2년 외환시장

- 선진국의 재정위기로 주요국, 금융기관의 신용 등급이 강등되면, 위험회피 현상과 금융기관의 유동성 문제로 국제자금의 유출입 변동성 증가
- 선진국의 통화정책 완화는 금리가 높은 신흥국으로 자금 유입 가능성
-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은 미달러화 강세 초래, 단 미달러화의 강세폭은 크지 않을 전망
- 신흥국은 환율변동을 낮추기 위한 자본통제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도 있음.

## 2012년 상반기 환율전망

	원/달러		엔/달러		달러/유로		위안/달러	
	Q1 12	Q2 12						
Standard Chartered	1210	1155	81	79	1,2	1,22	6,36	6,31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1220	1180	74	73	1,25	1,25	6,4	6,35
Nomura Bank International	1170	1145	77	78	1,2	1,2	6,32	6,25
JPMorgan Chase	1120	1080	76	76	1,3	1,34	6,23	6,15
Credit Suisse Group	1165	1103	74	75	1,24	1,26	6,39	6,31
BNP Paribas	1180	1150	73	71	1,28	1,35	6,28	6,24
Morgan Stanley	1170	1190	74	73	1,25	1,23	6,25	6,17
HSBC Holdings	1130	1110	73	73	1,4	1,42	6,3	6,25

자료: Bloomberg Terminal.

# 2012년 채권시장

- 선진국 경제성장세 둔화가 신흥국에도 파급되면 글로벌 인플레이 압력은 둔화 될 듯
- 선진국은 당분간 저금리기조 유지, 신흥국은 긴축기조 완화 예상
- 안전자산 선호로 주요 선진국의 장기국채금리는 당분간 낮은 수준 유지 전망. 유럽 재정위기가 완화된다면, 장기국채금리의 상승 가능성도 있음.

## 2012년 주요국 금리 전망\*

		현재	2011년 평균	Q1 12	Q2 12	Q3 12	Q4 12
미국	기준금리	0,00-0,25	0,00-0,25	0,00-0,25	0,00-0,25	0,00-0,25	0,00-0,25
	장기(10년) 국채금리	1,85	2,79	2,18	2,34	2,52	2,70
독일	기준금리(ECB)	1,00	1,26	1,00	0,75	0,75	0,75
	장기(10년) 국채금리	1,85	2,68	2,10	2,19	2,37	2,52
일본	기준금리	0,10	0,10	0,10	0,10	0,10	0,10
	장기(10년) 국채금리	0,99	1,13	1,11	1,17	1,20	1,25

자료: Bloomberg Terminal,

\* 주요기관 평균치

# 2012년 국제유가

- 선진국의 원유수요는 소폭 감소, 신흥국은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원유수입 증가세 지속 전망
- 세계원유공급량은 비OPEC국가를 중심으로 증가하여, 원유 수급여건은 개선 전망
- 세계경제둔화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는 소폭 하락 전망. 배럴당 100달러는 넘겠지만 하락세는 뚜렷 전망(WSJ).
- 이란 핵문제에 의해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가능성은 낮으나, 유가상승 초래는 가능. 리비아 생산이 조기 정상화되면 하락세 유지 전망

# 2012년 국제 원자재

- 구리, 니켈 등의 원자재는 수요감소와 가격하락 전망
-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금가격은 다소 상승. 더블딥 우려는 줄었지만, 신흥국 중심으로 금수요가 늘어, 금값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 전망. 온스당 1,900~2,000 달러 근접 전망
- 곡물가격은 수요감소로 인한 재고량 증가로 수급여건은 다소 개선, 하락 전망

# 2012년 교역량

		2010	2011	2012	
IMF (상품 +서비스) 2011. 9	세계전체	12.8	7.5	5.8	
	선진국	수출	12.3	6.2	5.2
		수입	11.7	5.9	4.0
	신흥/개 도국	수출	13.6	9.4	7.8
		수입	14.9	11.1	8.1
EIU (상품) 2011. 11	세계전체	14.1	6.8	5.2	
	선진국	13.3	6.0	4.2	
	개도국	14.4	8.6	7.1	

# 2012년 미국경제

- 기업재고, 주택건설 등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인 경기바닥임. 더 이상 후퇴하기도 어려운 수준
- 고령화 등으로 미국 재정수지는 급속히 악화되고 있으나, 감축방안에 대해서는 부유층 증세/감세를 놓고 정치적 대립 상황
- 2012년 미국은 잠재성장률(2.4~2.7%)을 하회하는 1.9% 안팎의 성장세 전망
- 더불딤 가능성은 10% (Goldman Sachs)

- 재정적자로 경제정책적 해법은 딜레마에 빠짐. 경기부양정책과 양립하기 어려움.
- 오마바 We Can't Wait. 일자리 창출법안의 의회 통과 불투명 → 대통령 행정명령에 의한 개별적 경기부양책으로 선회
- 월가 시위 확산으로 고용회복 지원 등 일부 시행 가능성 증가
- 미국의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 가중 및 보호주의 무역의 재부상 가능성이 있음. 미국과의 무역흑자국에 대하여 통상공세가 더욱 강화될 전망

# 2012년 유럽경제

- 재정위기 등으로 심각한 저성장 내지 경기침체 예상
- 그리스 문제가 해결되고, 이탈리아 및 프랑스 위기 가능성을 배제한다면, 0.2% 성장 전망.

(단위: %)

	2010년	KIEP		OECD		EU 집행위원회		Global Insight	
		2011년	2012년	2011년	2012년	2011년	2012년	2011년	2012년
E U	2.0	-	-	-	-	1.6	0.6	1.6	-0.3
유로지역	1.9	1.6	0.2	1.6	0.2	1.5	0.5	1.6	-0.7
독 일	3.7	2.9	0.8	3.0	0.6	2.9	0.8	3.0	0.2
프 랑 스	1.5	1.6	0.3	1.6	0.3	1.6	0.6	1.6	-0.7
이탈리아	1.5	0.6	-0.6	0.7	-0.5	0.5	0.1	0.5	-1.5
스 페 인	-0.1	0.7	-0.1	0.7	0.3	0.7	0.7	0.6	-1.2
영 국	1.8	0.9	0.6	0.9	0.5	0.7	0.6	0.9	0.3

주: KIEP 및 Global Insight는 2011년 12월 기준 전망치이며, OECD와 EU 집행위원회는 2011년 11월 기준 전망치임.

# 2012년 유럽 재정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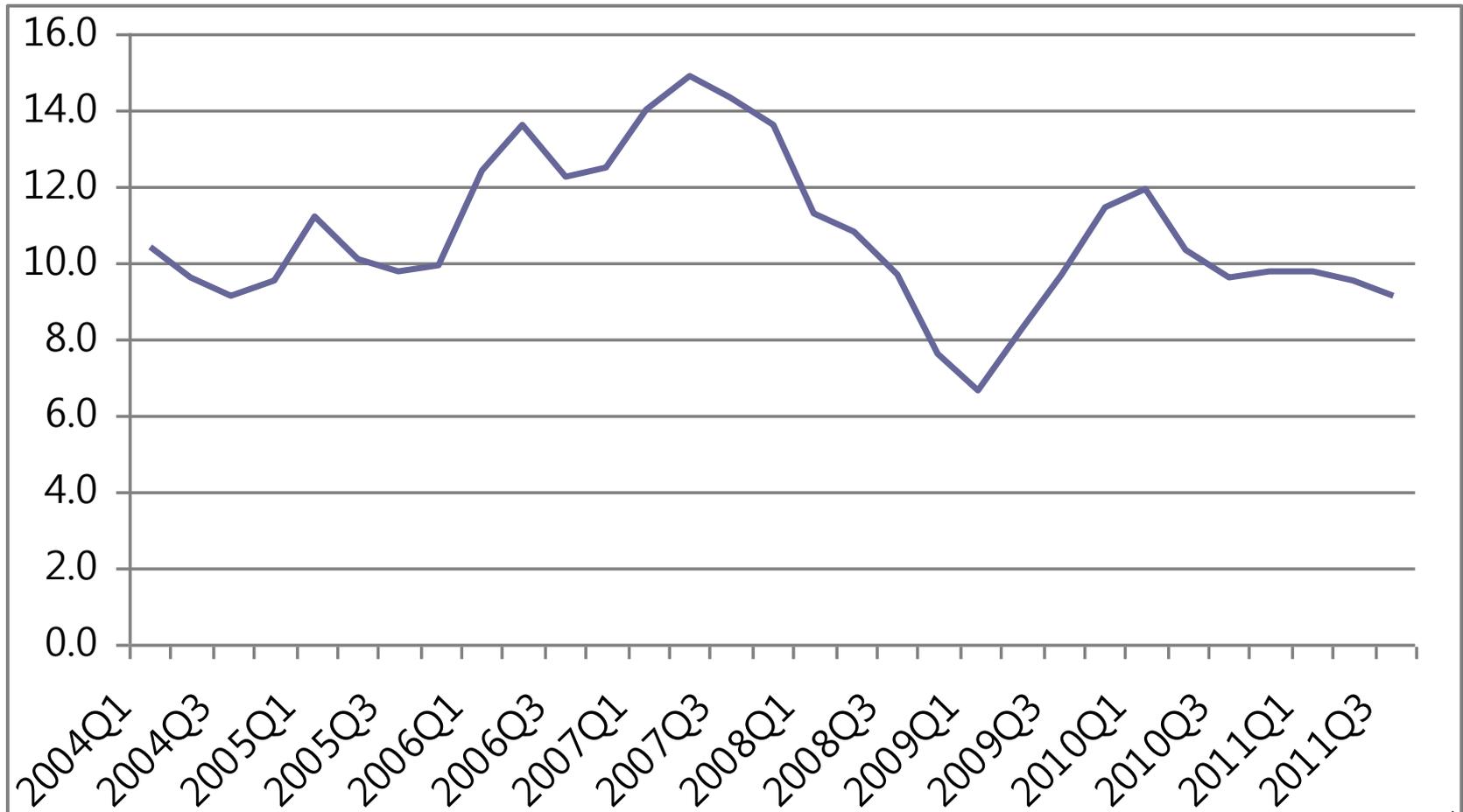
- 구제금융 3국 중 그리스, 포르투갈 여전히 위험
- 이탈리아의 구제금융 가능성 점차 증가
- 소규모 국가와 달리, 이탈리아의 재정위기는 서유럽금융권을 통해 전체 유럽으로 확산 가능성
- 스페인: 재정적자는 축소. 고실업, 성장침체, 부동산 문제 여전히.
- 일부 재정위기국가의 경제침체 우려가 2011년 하반기부터 EU 경제전반으로 확대

- 유럽 재정위기는 일부 국가의 방만한 재정운영, 경제개혁 실패, 유로화 체제의 근본적인 결함이 복합적으로 작용.
-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위기이나 장기적으로는 채무상환능력의 위기
- 그리스: 50% 부채감축 이행 등으로 점진적 안정화. 아니면 디폴트 선언과 유로존 탈퇴 가능성
- 이탈리아: 불안 완화 아니면 정치경제적 리스크 상승으로 국채금리 상승 → 구제금융 불가피
- 유로존 붕괴 가능성 40% (EIU). 단기적 임기응변식 유동성 위기 대응으로는 결국은 해결 불가능

# 2012년 일본

- 재해복구를 위한 공공투자가 회복세 견인. 또한 민간부문 총수요의 회복 및 기저효과 등으로 2% 내외의 성장세 전망
- 일본정부와 은행의 2.7~2.9% 전망은 유럽 재정 위기 등을 감안하면 다소 낙관적임. 해외경기둔화로 일본의 수출 부진 예상
- 또한 엔고로 인한 수출경쟁력 약화, 기업수익 감소로 기업의 해외이전 가속화, 국내 설비투자 감소 전망

# 2012년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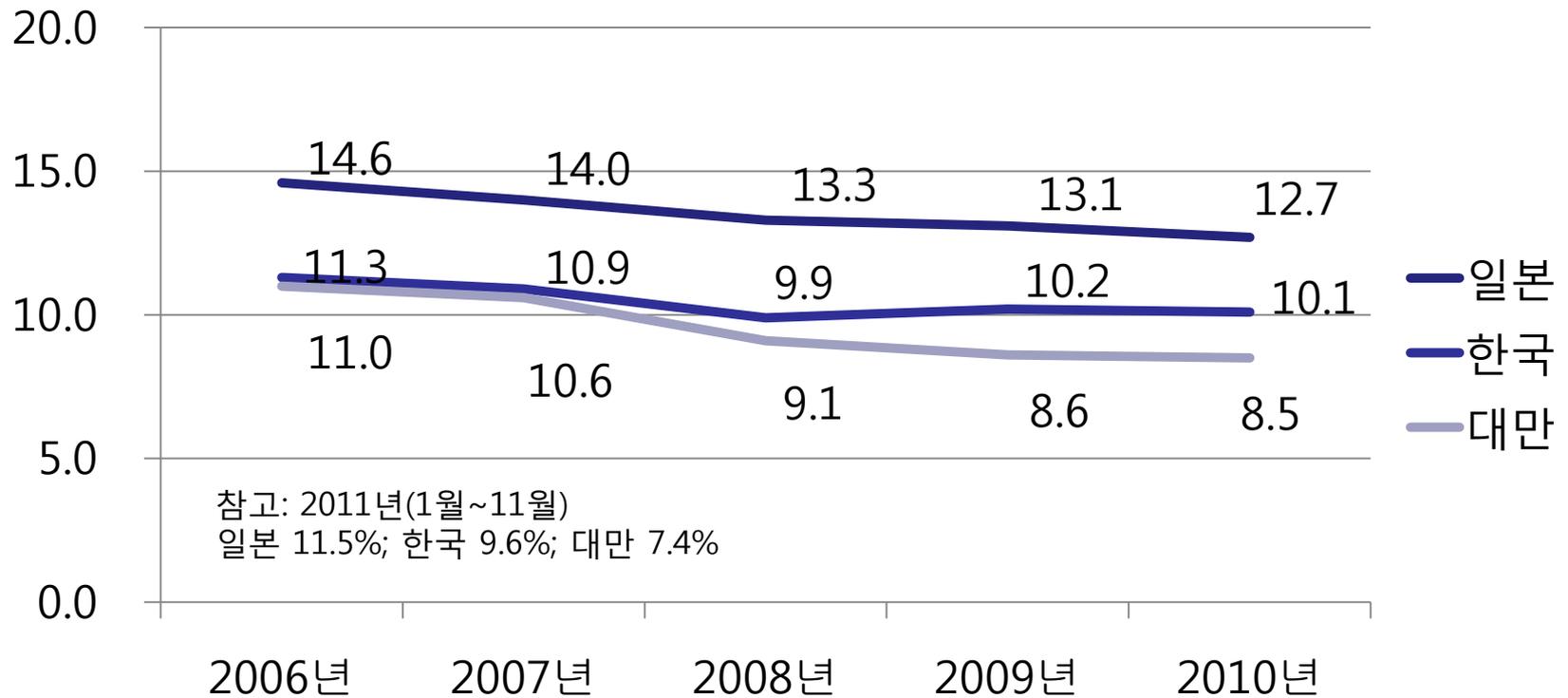


- 2011.12 중앙경제공작회의는 2012년 정책기조를 "안정속의 성장추구"로 결정
- 2012년 신중한 통화정책/적극적 재정정책 지속
- 신중한 통화정책→서둘러 통화정책을 풀지는 않음. 인플레 억제가 중요 정책임을 의미
- 2011년 하반기 시작한 "선택적 완화" 통화정책은 지속 전망 (2011년말 지급준비율 50bp 인하 및 중소기업에 신용공급 확대 등)
- 성장추구를 위해 확대적 재정지출은 지속→서민용 주택건설 및 농촌 인프라건설 등 지속

- 현행 위안화 정책 유지. 미국요구 불수용 전망
- 경착륙 가능성은 낮음.
- 부동산 (국내경제 리스크) → 버블 붕괴를 막기 위해서 20% 수준 가격하락 수용 전망. 재산세 부과 확대 등 수요억제정책 지속 전망
-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부동산가격의 40% 하락은 중국은행이 견딜 수 있는 수준
- Barclays 은행은 2012년 8.4% 전망. 단 유로존 붕괴, 미국 더블딥 발생시 4%대로 전망
- 결국 내수확대는 점진적임. 투자의존형 경제성장방식 탈피는 단기내 불가능 전망.

- 미국: 20세기 세계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엔진 역할
- 수출이 아니라 수입을 많이 해야 세계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엔진이 될 수 있음.
- 중국: 21세기 초,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엔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임. 단 세계경제의 성장견인을 주도?
- 한중관계: 한국은 누적 흑자국

# 한, 일, 대만의 중국시장 점유율



# 2012년 인도

- 2011년 인도의 최대화두는 인플레이였음. 2009년 하반기부터 인플레이가 인도의 고질적인 문제
- 2011년 들어 7차례 금리인상 단행.
- 인도중앙은행은 2012년 전망을 9%에서 8.2%로 하향조정하였으나, 외부기관은 7~7.6% 수준으로 전망
- 지속된 금리인상에 의한 국내수요 감소,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둔화세에 의해 2011년 7.8% 성장에서 다소간 하락 전망

# 2012년 브라질

- 2011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경기부양책에 의해서 2012년 성장률은 3.5% 내외로 전망
- 2012년에는 지자체 선거 예정 → 경기부양정책 지속 전망
- 따라서 투자가 성장을 견인하는 성장방식 지속
- 중국 등 주요수출국의 경기둔화는 브라질 수출 하락의 리스크 요인임.
- 경제위기 발발 가능성은 희박함. 은행 건전성 등 브라질의 기초여건이 과거와 다름.

# 2012년 러시아

- 러시아는 경제구조상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2012년 우랄산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유지할 경우 경제성장률 3.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러시아의 WTO 가입으로 향후 3월 대선 이후 러시아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이나, 세계경제 둔화로 위기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임.

# 2012년 정책이슈

- 미국과 주요 교역국 사이의 무역 불균형(글로벌 불균형)은 여전히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 경쟁적 평가절하 즉 환율갈등(전쟁)의 가능성 상존 → 통화가치의 주요 결정요인은 실질이자율과 환율 (미국은 이자율 하락, 중국은 환율고정으로 실제적으로 환율전쟁)
- 환율전쟁은 제로섬 게임 → 모든 국가가 동시에 평가절하 할 수는 없음.

- 유럽의 위기는 결국 장기적으로 유동성 위기가 아니라 채무상환의 위기임. 통화정책으로 해결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짐.
- 고령화, 과도한 재정적자 누적 등으로 재정정책의 역할도 더욱더 제한적임.
- 비관론자들은 국가간 무질서하고, 비협조적인 형태로 심각하게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세계경제가 중국에 가서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Fasten your seatbelts, it's going to be a bumpy year. (뉴욕대 루비니 교수)

**경청하여 주어서 감사합니다**